

## 1. 美 광우병 쇠고기 검역 재개 연말?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 우려

- 7월 29일 미국 카길사에서 수출한 소 목심 18t의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살코기와 함께 포장된 소의 척추가 발견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우선 8월 1일 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8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검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는 “수출용과 미국 내수용을 구분하는 구역에서 포장기계 고장으로 상자들을 섞어 쌓다 박스 일부가 파손됐고,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T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으로 ▲포장 전 내용물 육안 검사원 배치 ▲컴퓨터 박스 무게 허용범위 축소로 뼈 포함 여부 식별 강화 ▲육안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한국 검역당국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미국의 일방적 문서상 해명을 근거로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역 중단 조치를 풀어줘 한-미 FTA 비준만 염두에 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작년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됐을 때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6개월간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를 철저히 수출증명(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 농림부의 향후 검역 방침도 논란거리다. 앞으로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지시키고, 등뼈 등 SRM이 또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다시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의 압력에 스스로 굴복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메가톤급 충격이 우려된다. 8월 1일 검역중단 이후 국내 검역 창고에 쌓여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고분은 모두 6,830t이다. 문제는 검역이 다시 시작되면 이들 물량이 한꺼번에 국내 시장에 풀리고, 유통업자들이 취약한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를 악용, 둔갑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만약 쇠고기 재고분이나 신규 수입분에서 갈비나 등뼈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무원칙한 ‘검역중단 조치’와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다분하다. 결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식품안전성 문제는 물론, 한육우·돈육·계육 등의 연쇄적인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 2. 농협중앙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농업계의 비판과 자성 촉구 목소리 쏟아져

- 최근 농협중앙회는 인천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개발구역인 건지지역에 기존 가좌지점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이 영업하는 지역으로 중앙회 지점과 500여 미터 거리여서 경합사업을 금지하는 농협법(제6조)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 로도복권 사업권의 경우 농협이 농업과 무관한 사행사업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농협은 유진그룹과 ‘나눔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와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12월 1일부터 5년 동안 로도복권을 운영한다. 로도복권은 매주 400억원, 연간 2조 5,000억원 규모로 매년 700억~8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정대근 회장의 무죄를 탄원하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란 눈총을 사고 있다.
-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는 자체 수익극대화과 임직원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농민조합원의 사회경제적 권익 실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회원조합과의 불필요한 경합과 갈등을 지양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농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하여, 그 수익을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과 발전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 특히 역대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이 각종 비리로 불명예퇴진한 사례를 교훈삼아,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다.

## 3. 9월 11일,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 저지 농민대표자 결의대회” 열려

- 정부가 빠르면 올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맞아 한농연과 농업계는 9월 11일 오후 2시, 전북 장수군청 앞에서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 저지 농대위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를 계기로 한농연과 농업계는 6월 20일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 이후 침체된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열기를 높이고,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자 한다. 특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등 부당한 통상압력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식품안전권과 농민생존권 확보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농연은 앞으로 11월 6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가칭)’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3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 여론을 강력히 전달하고, 대선 및 총선 정국에 대응하여 여야 정치권의 한-미 FTA 반대 당론 채택 등을 적극 촉구·관철해 나갈 방침이다.